



일제의 문화재 정책 평가 세미나.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작업'을 결산하는 세미나가 지난 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

### 일제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 일제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사할문화재를 비롯해 일제는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얼마나 약탈하고 파괴했는가. 지난 3일 문화재관리국 주최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작업'을 결산하는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 약탈 문화재중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 우선 일제의 대량도굴로 석굴암 주변여래불과 그 연

1943년 8월과 11월 전북도 경찰부장과 총독부 학무국장이 각각 발송한 '유리의 숙성 및 반사국적 고적의 철거에 관한 건' 문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영호교수는 이같은 사실 외에도 경주 동천동 굴불사지석불상(일명 사면석불)에서 본존석과 여래의 머리부분과 오른쪽 협시보살상 전체를 정으로 쪼아 떼어낸 사례 등 석불의 훼손 및 말반출 사례를 제시했다.

#### 사적 파괴 지시 총독부 문서 최초 공개 석불훼손·전적·불화 수탈유출도 밝혀

화대좌의 파괴, 굴내에서의 대리석오층석탑 말반출 사실이 제시됐다. 또 불국사 고려사리탑과 다보탑석사자 말반출 등 일제초기 불법약탈행위는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류승무교수의 설명이다.

일제는 1911년 사할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문화재침탈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악랄한 행위는 1943년 합천 해인사명대사석장비, 고성 간봉사사리탑사적비 등 20여건의 사적비를 '반식국적 고적'이라고 하여 파괴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한명우 기자

### 美 버클리대 '한국학자료 산실'

#### 서지학회, 회귀전적·탁본 4천1백여점 찾아내

인간사보각국사정조탑비(麟角寺普賢觀音神塔塔碑) 등 국내에 없거나 희귀한 탁본 등의 방대한 분량의 한국학 연구자료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서지학회에 지난 95년 7월부터 한달동안 조사를 실시, 이 대학 동아세아도서관 아시아(淺見)문고에서 전적 837종 4011책, 탁본 155종 등 회귀자료를 찾아내고 최근 '해의전적문화재조사 목록'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출간하면서 이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중 삼국 및 고려시대의 초기 탁본을 비롯한 고탁본 155점은 우리나라 금석학과 역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인조실록(仁祖實錄) 등 249종의 활자본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문고에는 조선시대의 치산치수 정책, 당쟁사, 풍속사, 법제사 등의 자료가 폭넓게 산재해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버클리대학이 50년 일본 미쓰이(三井)물산에서 구입한 것들이다.

한명우 기자

# “자기수행공덕 이웃위해 회향”

## 교수불자련 '깨달음의 사회화 어떻게...'

조계종(총무원장 일주) 개혁종단은 2년전 출범하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하 깨달음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운동은 아직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운동의 주제와 객체, 내용과 방향 등이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성 조직성 지속성의 문제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이러한 깨달음운동의 교리사상·사회과학·복지정책·실현운동적 측면에서 이론적인 지침을 제시한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언기영교수 ○박경준교수 ○류승무교수

한국교수불자련학회(회장 오상완 인학대교수)가 주최한 '깨달음의 사회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의 학술대회에는 종단차원의 불교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열린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영(동국대)교수의 '깨달음의 사회화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비롯 박경준(동국대) 류승무(승가대) 황진수(한성대) 연기영(동국대)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끝에는 평안연(동아대)교수 효림(보광사 주지) 성관(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법륜(한국JTS대표)스님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기조발제에서 박선영교수는 깨

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깨달음'의 불교 교학적 근거로 회향(廻向)·자기의 수행이나 공덕을 다른 중생(衆生)을 위해 회향하는 것) 회소향타(廻少向他·되도록이 많은 중생에게 회향하려고 하는

## “부처님은 자유·평화 바탕 ‘깨·사운동’ 선구자” 국민 참여 유도 강화로 불법 생활화·대중화

운동을 한마디로 '회향(廻向)사상(他行·자기의 인행을 다른 중생의 인행으로 회향하는 것)을 열거하고 이는 곧 '불교의 사회적 환

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질 토대 확보와 정치적 역량, 대중적인 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수는 불교의 대자대비사상을 중심으로 불교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깨달음운동을 통한 의식혁명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언기영교수는 실천운동적 측면에서 깨달음운동을 다뤘다. 언교수는 "부처님은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선구자였다"며 깨달음운동의 맥이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운동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참여·실천불교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근·현대사로 전개되어 온 불교운동의 흐름을 깨달음운동적 측면에서 조명, 깨달음운동의 생활화 대중화를 강조하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김재경 기자

## 막스베버 불교연구 오류는 무엇인가

### “대승불교 신비주의로 잘못해석” 류승무교수 ‘학문적 비판’... 분석 능력 부족 지적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 동양 종교에 관한 가장 뛰어난 연구 업적을 자랑하는 막스 베버(독일·1864~1920)는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불교에 관한 그의 연구의 오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베버의 대승불교 연구에 관한 국내 학문적 비판과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가 '중앙승가대 교수의 논문' 제5집에 기고한 논문 '베버의 대승불교 해석에 관한 비판적 이해'는 베버의 대승불교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류교수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베버는 첫째,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른 대승불교의 적응과정을 △세속에서의 경제적 생존조건에 대한 적응 △고난에서 구세주를 바라는 평신도들의 욕구에 대한 적응 △사적인 계층의 신학적 사변적 욕구에 대한 적응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는 신학적 기초에서 유식이론의 발달을 지적하고, 여기에 보살의 개념이나 부처의 초자연적 성격이 결합하는 등 대승불교의 이념구조가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는 대승불교가 이러한 신비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속을 '마술의 정원'으로 만들고, 세속 내에서의 합리적인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는



○막스 베버

운리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버의 대승불교연구는 불교사상이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철저히 분석, 치밀함과 실득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동양문화에 관한 부정적 문화관이 전제되는 등의 일정한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류교수의 주장이다.

류교수는 먼저 베버의 불교에 대한 오류 몇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베버의 동양사회론이 오늘날처럼 경제발전

## 불상조성기 새긴 신라금석문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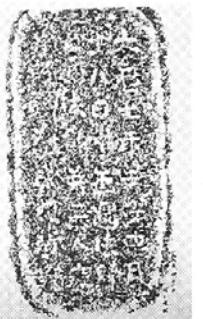
### 하일식씨 창녕 판문사서

8세기 후반 경남 창녕지역에서 미륵불상을 만든 뒤 그 내용을 기록한 금석문(불상조성기)이 새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일식씨(연세대 강사)는 최근 창녕을 소재 관동사 약사전 안에 있는 석불 대좌의 중대석(中臺石) 안상(眼象·코끼리 눈의 장식 모양)안에 새겨져 있는 불상조성기를 지난 4월 발견, 네차례의 정밀조사를 거친 끝에 26자를 판독해 냈다고 밝혔다.

총 32글자가 새겨져 있는 불상조성기(13x26cm)중 하씨가 판독해 낸 것은 모두 26자. 하씨는 이를 '대력칠년임자사월(大曆七年壬子四月) 십팔일중불환법사(十八日中不環法師) 오법사법인이응(法師并二人應) 오오오성내미륵(威內彌勒)'으로 판독하고 '대력 7년 4월18일 불환법사와 오법사 모두 2인이...에 따라 미륵을 이루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는 불상조성 연도가 '대력7년임자(大曆七年壬子·신라 해공왕 8년에 해당)로



○발견된 8세기 금석문

명확히 밝혀져 있다. 또 이 자료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이두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성내(威內)'는 '이루다'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된 이두식 표현이다.

이번에 발견된 미륵불상조성기는 같은 시대인 8세기대의 불상조성기 중 학계에 보고된 것이 5편 내외일 정도로 가치가 있고, 비록 글자수가 32자에 불과하지만 신라 이두문에 대한 또하나의 사료를 보겠다는 점과, 현재의 창녕에서 두 명의 승려에 의해 미륵불상이 만들어진 사실을 밝혔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

###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학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보각)가 최근 논문집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호를 펴냈다.

노인복지에 관한 논문 9편이 실린 이번 논문집에 권경임씨(승가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논문 '불교의 노인복지사상 일고찰(一考察)'에서 인간 욕망의 지속적인 충족을 목표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달리 불교의 사회복지지는 내적 갈등이나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복지까지도 강

21세기를 • 이끌어갈 • 선재를 • 찾습니다

## 1997학년도 법사원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교계 정예포교 지도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함  
△ 대중불교운동과 포교능력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과 과정과 강사진  
△ 저렴한 학비로 信·解·行과 복덕이 원만한 지도자 배양

■ 교육과정 및 과목

1학년		2학년	
과목	교수	과목	교수
1. 불교의 생애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 원서보고계성	조윤희(동국대 교수)
2. 불교의 교의	김상현(동국대 강사)	2. 대승불교개성	권기순(동국대 교수)
3. 불교의 계통	해우스님(동국대 교수)	3. 불교사회의	박경준(동국대 교수)
4.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4. 한국불교사상개성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5.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5. 법회개성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6.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6. 승안개성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7.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7. 승국개성	차지석(동국대 강사)
8.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8.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9.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9. 불교포교학	김소현(동국대 강사)
10.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0. 대중불교보살사상	계한스님(동국대 교수)
11.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1.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2.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2.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3.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3.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4.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4.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5.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5.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6.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6.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7.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7.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8.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8.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9.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19.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20. 불교의 교단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20. 불교개성사상	목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 특전  
1. 불교과 졸업후 법사고시 합격자에 한해 법사증 수여  
2. 각종 장학제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3. 사찰 및 포교당 개설시에 행정지원, 법사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육부에 문의바람.

본 불교대학은 통신과정으로 직장인 및 거리상의 문제로 공부를 미루어 온 여러분께 회소적인 통신과정 불교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육과정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교수님들이 불교학의 정수를 가려 뽑은 교재를 만들어 최신 기기로 녹음하여 수학의 성취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 불교 법사원 불교대학**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8-6 뉴장충빌딩 1층  
전화 : (02)266-1827, 264-1827 팩스 : (02)279-3427